



쓸쓸하고도 따뜻한 성찰의 할꺠, '와이why 키키?'

알로하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하와이언이 붉은 하이비스커스를 관광객의 머리에 꽂아준다. 습하지 않은 청량한 사바나 기후는 야자열매의 단물을 쟁이고, 금발의 미녀들이 해변에 앉아 잇바디를 드러내며 '키키' 웃는다. 미국 하와이 주에 자리한 해변휴양지 와이키키, 어둠이라곤 것들지 않을 것 같은 환한 세상의 한가운데... 세계적 그룹 비틀즈를 꿈꿨던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와이키키에서 실력을 선보인 적이 있다. 몸을 밀착시킨 사람들이 네 박자 리듬에 맞춰 뽐뽐 돌고, 오색찬란한 사이키가 확확 돌고, 섯된 웨이터 '기태'가 저벅저벅 홀을 도는 '와이키키 나이트클럽'에서 말이다.

임순례 감독의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4인조 밴드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잘 나갔던 과거와 보잘 것 없는 현재를 보여준다. 잘 나갔다고는 썼지만 충주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밴드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전성기의 전부다. '와이키키' 이름값도 못하는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연주와 노래를 듣는 당신은 그들에게 한 마디 통바리도 주어서는 안 된다. 해변휴양지 와이키키가 아닌 나이트클럽 와이키키에 기

생해 생을 살아가는 당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연주와 노래를 끝낸 뒤 우리에게 능청스레 한 마디를 던진다. "삶은 아름답다!"

와이키키와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4인조 밴드(성우·강수·정석·현구)로 시작하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영화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돼 색소폰을 맡은 '현구'가 그만두며 3인조 밴드가 된다. 나이트클럽 와이키키에 정착하는가 싶더니 대마초를 피우고 말썽을 일으킨 드러머 '강수'가 밴드를 떠나면서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허물어진다. 급기야 '성우'는 룸살롱에서 알몸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처지에 이른다. 사투하듯 음악을 지켜가는 그들의 고집에 고개를 절레 흔들게 되는데,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다시 말을 건넨다.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꿈꾼 것은 미국 하와이 주에 있는 해변휴양지 '와이키키'가 아니라 '브라더스'였다고. 곧 함께 호흡을 맞춰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밴드였다고. 듣고 보니 그렇다. '충고밴드(충주고등학교밴드)' 시절, 여학생 앞



4인조 밴드로 시작하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영화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돼..... 색소폰을 맡은 '현구'가
그만두며..... 3인조 밴드가 된다.....

소설은.....영화와 대척되는 부분이 많지만..... '최 기타'의 과거 회상에 이르면.....
 어김없이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밑그림을.....선명히 드러낸다.



《와이키키 브라더스》구자형 지음 | 안그라픽스 | 262쪽 | 값 9,500원

에서 엉겁결에 흘린 이름이 '와이키키' 였듯, 반짝이는 시절이란 그들에게 중요치 않다. 그래서 친구 '민수'는 '성우'에게 말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하고 사니까 행복하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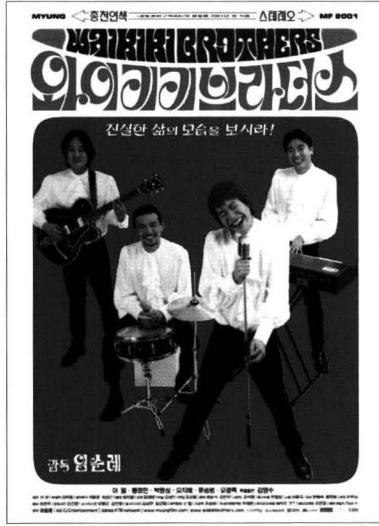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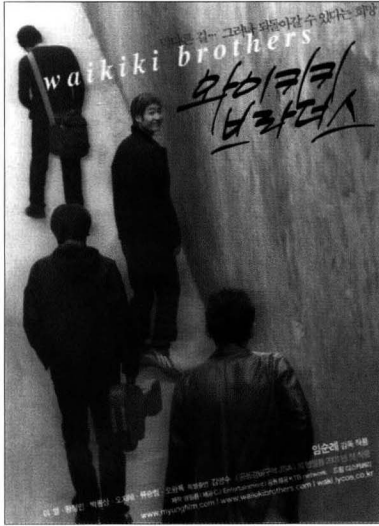
'삶은 아름답다'는 메시지의 의미는 이것이다. 반짝거리는 시절을, 와이키키를 꿈꾸지 마라. 그곳이 울릉도든 제주도든 간에 마음 기울어 꿈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리고 보면 생의 밝은 곳을 가리켜 '삶은 아름답다'고 우리는 발설한 적 없다. 남루한 현실을 견디는 인물, 혹은 그 자리를 보며 '삶은 아름답다'고 되뇌었을 뿐.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당신은 왜 행복한가에 대한 진중한 물음을 이렇게 남겨둔다.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why(왜) 키키거리는가(행복하게)' 그것이 바로 '와이키키'다.

한국 최초의 록 소설을 내세우는 구자형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빗을지고 있다. 소설이 영화로 제작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영화가 소설로 거듭나는 것은 드문 경우라 신선하다.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황종음밴드'

를 스토리 모델로 해 그들의 과거를 추억한다면, 소설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황종음밴드'의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김현식의 '골목길'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 등 영화에서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부른 노래의 목록과는 달리, 산타나의 '삼바 파티',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 웨이 투 헤븐' 등 세련된 팝이 소설 속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롤링스톤즈나 퀸은 못되겠지만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2004년 오늘, 자신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와 연주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소설 속의 '민형'은 "미사리나 신촌, 홍대 앞의 라이브 무대를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뭔가 세계적인 음악축제의 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더의 비전을 말하기도 하는데,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현재와 미래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니 소설을 읽는 내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소설은 영화와 대척되는 부분이 많지만, '최 기타'의 과거 회상에 이르면 어김없이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밑그림을 선명히 드러낸다. 청계천 즉석불고기 립살롱, 요정 등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니며 연주하던 일, 나이트클럽을 홍보하느라 용달차에 몸을 싣고 농촌지역을 순회했던 일 등 영화 못잖은 요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꿈꾼 것은.....
 미국 하와이 주에 있는..... 해변휴양지..... '와이키키'가 아니라..... '브라더스' 였다고.....





철 투성이 과거를 내보이는 것이다.

소설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비틀즈와 김민기를 좋아했던, 아니 모든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소설이자 알아주는 이 한 사람 없어도 최고의 연주를 위해 언더의 꿈을 잊지 않는 연주자들에게 바치는 헌사다. 록 소설이라고 저자가 내세운 만큼 밥 딜런, 비비킹, 레드 제플린, 지미 헨드릭스 등 세계의 뮤지션에 대한 정보도 넉넉하게 곁들이고 있다. 영화가 ‘삶은 아름답다’라고 들려준다면, 소설은 “그것이 정답”임을 보여준다.

영화와 소설에 이어 뮤지컬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현재 공연되고 있다. 뮤지컬은 스토리라인이 큰 소설보다는 영화를 각색하는 쪽을 택했다. 뮤지컬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충주고등학교 밴드 ‘충고밴드’와 충주여고 밴드 ‘버진 블레이드’, 주인공 ‘성우’와 ‘인희’의 사랑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 귀만 열고 있는 뮤지컬이 아니다. 흘러간 추억의 노래를 즐겁고 또 쓸쓸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이가 ‘와이키키 브라더스’ 밴드의 보컬이 되는 뮤지컬이다. ABBA의 노래를 엮은 뮤지컬 《맘마미아》가 공연계

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우리 창작 뮤지컬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객이 많이 들어 뮤지컬이라도 남루한 티를 벗으면 좋으련만, 어찌겠는가,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고 서울 팝콘하우스 안에서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노래하는 것을.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를 덧붙이자면,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홍대 앞 클럽 ‘블루버드’에서 공연을 자주 갖는다고 한다. 지하의 좁은 무대에서 혼을 다해 연주하고 절창하는 그들을 직접 만나보는 일도 의미가 남다르겠다. 단,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 ‘와이why 키키?’ 묻지 않아도 된다. ☞ 글 박용두 기자



● 뮤지컬 공연 정보

공연일: 2004년 3월 14일까지

공연장: 서울 팝콘하우스